September 2020

esquirekorea.co.kr

Esquire

시속 300km에 도전하다. 초보 아빠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갈비, 제대로 알고 먹자. 괜찮은 바비숍 네 곳.
예술감독 손열음. 만능돌 오마이걸 아린. 봉인 해제될 이영지. 돌아온 윤두준.

ISSN 1228-0089
PRICE : 6,500 KRW

COVER STORY ~ CHA EUNWOO Vol.300

Sleeping Beauties

코로나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 새 호텔이
오픈하고 있다.
그 품을 직접 누리는 건
아직 기약이 없는 일.
아쉬우나마,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호텔
7곳을 골라 소개한다.

editor OH SUNGYOON

© ELOISE LOPUD

LOPUD▪1483

두브로브니크 - 크로아티아

lopud1483.com
lopud.1483

이 호텔의 존재로 여행 애호가를 탄식하게 만들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사진을 몇 장 보여주면 식은 죽 먹기이고, 어쩌면 그냥 관련 키워드 몇 가지 읊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마냥 허풍 같다면 당장 스스로 시험해보시라. '아드리아해에 면한 발칸반도의 작고 조용한 섬, 500여 년 전에 지은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의 요새, 영국 여왕 다음간다는 미술품 컬렉터의 방, 중세 약사들이 조성한 약초 정원과 지하 비밀 동굴로 연결된 해안.'

로퍼드 1483은 중세 수도원을 재단장해 만든 호텔이다. 크로아티아 로퍼드섬이라는 입지와 처음 건물을 축조한 연도에서 이름을 따왔다. 유서 깊은 미술품 애호가 가문 티센-보르네미사의 후예 프란체스카가 이 수도원을 발견한 건 1990년대. 발칸반도에서 전쟁으로 손상된 미술품을 구조 중이던 그녀는 건물에서 '500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공명하는 영적인 울림'을 느꼈다고 했다. 재단장을 맡기고자 건축가 프랭크 게리와 함께 건물을 돌아보기도 했으나 결국 본인이 직접 작업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런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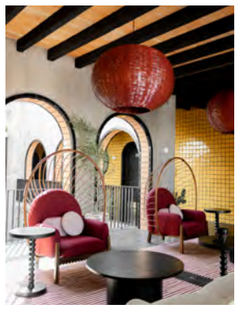
결과는 첫 문단과 같다. 재건은 행여나 건물에 감도는 영성이 훼손될까 녹조차 함부로 제거하지 않는 수준으로 진행했다. 대신 당대에 이곳이 명상과 기도에 특화된 수도원이었다는 옛 기록을 살펴 약국 시설과 약초 정원까지 복원해냈다. 화룡점정은 미술품이다. 프란체스카는 가문의 소장품과 컨템퍼러리 미술 컬렉션 TBA21을 활용해 공간을 채웠다. 한 방 안의 가구와 장식품, 그림도 몇 세기를 훌쩍 훌쩍 넘나드니 콘셉트보다는 영감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겠다. 9월까지는 전체 호텔을 독점 예약하는 것만 가능하며 가을부터 5개의 스위트룸에 개별 투숙할 수 있다.

© IGOR ZACHAROV

©DIEGO PADILLA

CASA HOYOS

산미겔데아옌데 - 멕시코



만약 누군가가 '가장 한국적인 숙소'를 묻는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의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한옥 민박? 고택 스테이? 궁궐과 고층 빌딩이 동시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호텔? 도심 러브 호텔의 놀라운 기술 설비와 빼어난 기획력을 한국의 맛이라 자부할 수도 있을까? 범주에 적산 가옥을 들여놓는 건 자칫 불경한 일이 될까? 카사 오요스가 '가장 멕시코적인 숙소'를 구현한 방법은, 역사의 다채로운 측면을 한 공간에 켜켜이 채워 넣은 것이었다. 전통 기술과 멕시코의 현대 디자인 양식,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유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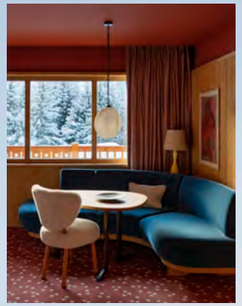
호텔은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산미겔데아옌데의 시내에 위치해 있다. 오요스 가문에 4대째 내려오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스페인식 주택이었으나 역사 속에서 다채로운 기능을 했다. 종묘상부터 도시의 첫 환전소에 이르기까지. 건축 사무소 AG 스튜디오는 건물의 식민지 양식을 유지하며 새로운 색상과 패턴을 더해 건물이 지닌 역사까지 은유하고자 했다. 유약을 바른 세라믹, 파스타 타일, 점토 석판 등 지역 장인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통 콘크리트 벽, 독특한 텍스처의 유리, 특유의 타일 활용 방식, 검은 윤곽선 등 '멕시칸 모더니즘'이라 할 만한 디자인 요소를 더하기도 했다. 램프부터 안락의자, 화분, 태피스트리에 이르기까지, 16개 객실 곳곳에서 멕시코 유명 디자이너들의 감각도 느낄 수 있다.

casahoyos.mx
casahoyos

ART DESIGNER 주정화(JOO JUNGHWA)

HÔTEL LE COUCOU

레 알류 - 프랑스



프랑스 남부 알프스 지역에는 3개 계곡에 걸쳐 조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 스키장 레 트루아 발레가 있다. 마리벨은 그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스키 리조트이며, 호텔 르 쿠쿠는 리조트 내에 가장 최근에 문을 연 5성급 럭셔리 부티크 호텔이다. 호텔 르 쿠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복잡한 입지를 모두 충족하는 형태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우선 샬레(유럽 산간 지방 특유의 지붕이 뾰족한 목조 주택)를 차용한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의 위화감을 없앴다. 하지만 그 실체는 1만2000㎡, 10층 규모의 호텔. 오두막 같은 외양을 보고 내부로 들어온 방문객은 하나같이 감탄을 터뜨린다. 호텔 르 쿠쿠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대성당을 방불케 하는' 내부 공간의 위용 때문이다.

친밀한 이미지와 압도적 감각 사이의 대조와 융합은 객실까지 이어진다.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 피에르 요바노비치는 고전적인 알파인 스타일과 미니멀 미학, 위트를 절묘한 비율로 배합해 독창적인 인테리어를 만들어냈다. 최신 시설답게 '스키-인 스키-아웃'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테라스가 슬로프와 연결되어 있어 호텔을 나서자마자 곧장 알프스산맥의 등허리를 탈 수 있다는 뜻. 39개의 스위트룸과 실내 복도로 연결된 2개의 독채를 갖추고 있으며,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실내 수영장과 설원이 바라다보이는 실외 수영장도 특기할 만하다. ○

lecoucoumeribel.com
lecoucoumeribel

©JEROME GALLAND